



자수불화를 수놓고 있는 정초순씨와 적극적인 후원자인 시어머니 박순채보살 (서있는 사람).

### 불심이 빛은 48폭 자수불화

#### 정초순씨 연흥사에 보시

현존하는 불화·후불탱화 23종류가 한 뼘 한 뼘 자수로 수놓아져 총 48폭의 자수불화로 조성됐다. 불감사의 삼세불도·표충사의 아미타삼존불 등 채색화로나 볼 수 있었던 성보 불화들이 자수로 재현됐다. 전통자수작가 정초순씨(38)가 20년동안 쌓아온 기량을 날실로 또 지극한 불심(佛心)을 씨실로 해서 이루어낸 것이다. 자수불화의 종류로서는 완결권이라 할 수 있는 정씨의 이번 작업 동기마저도 원할인 영광 연흥사 불사를 위한 발원이어서 그 뜻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몸과 마음이 수의 세계로 들어갔나봐요. 부처님과의 약속을 다 지키고 보나 이제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은 것 같아요."

수(繡) 결만틈이나 차분하고 말수 적은 정씨는 대작을 마무리한 소감을 짧게 털어놓는다.

"아제는 보살이여, 사람이 한 일이 아니랑께."

영광 이쁜이 첫감집으로 유명한 정씨

의 시어머니 박순채씨(73)는 며느리를 '아씨'라고 부르며 감격해한다. 아침저녁 천주를 돌려 관음주력을 하고 108배로 시작한다는 박씨는 아들내외와 신앙을 감추지 않는다.

정씨와 남편 김정기씨는 2년전 자수불화 제작불사를 착수하고부터는 낮에는 시어머니를 도와 첫감집사를 하고, 저녁 8시부터는 묵묵재계하고 방문을 걸어잠근 뒤 새벽 2시까지 부부가 함께 수를 놓았다. 워낙 대작이다 보니 남편이 수를 뒤에서 받아 다시 바늘을 꼽아 정씨에게 넘겨주기도 한다. 손재주 좋은 남편은 대형수를 제작업 등을 직접 해주는 실질적인 후원자인 것이다. 한 울 한 울 채워진 그 정교함이 도무지 채색불화인지 수에 작품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이다.

정씨는 내년 초파일을 전후에 전시회를 가진후 작품 전체를 연흥사불사금으로 시주할 계획이다. 형형색색의 색채로 수놓아진 자수불화로 가득 채워진 정씨 집안은 부처님 광명이 나뉠 것 처럼 환하다.

워런턴 기자  
(yryu@buddhapia.com)

## 주부신행담

### 집착 ①

**살** 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타인과 어떠한 모습으로 인연을 짓고 있는가!  
그동안 나는 욕심과 야심과 착으로 인해 바로 눈 앞의 생활에 고달리면서 동등거리며 살던 30대 중반의 가정 주부였다. 자식들에 연관 지어진 일은 무엇보다도 최우선 순위로 여기던 나를 그나마 가장 편한 말로 표현한다면 회색을 다하던 엄마요. 부지런한 주부였다. 나의 집착에서 비롯된 노력만큼이나 아이들은 잘 따라주었다. 그러나 나는 지나친 경쟁의식을 갖고 있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연중 행사처럼 같은 반 아이의 학부형과 드러나도록 부딪치는 갈등을 겪었다.

큰 아이가 4학년, 작은 아이가 2학년엔 재학 중이었다. 두 아이 모두 1등을 놓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잘 할뿐만 아니라 친구들과도 우애가 좋았다. 4학년인 큰 아이는 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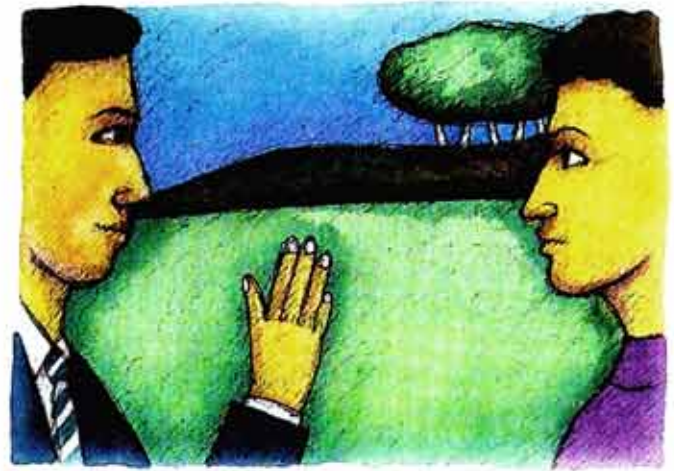


그림 · 문병성

### "집착은 욕심을 부르고 본래 나를 잃게 하지요"

투표로 반장에 뽑혀 소임을 맡아보고 있고, 둘째 아이도 탐입선생님의 권유로 반장을 맡고 있다. 아이들이 자랑스러웠고 아이들을 최고로 키운 것 같아 나 또한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뿌듯했다.

그러나 문제는 예기치도 않은 곳에서 발생했다. 둘째 아이가 선생님의 추천으로 반장을 맡게 되자 다른 학부모들의 시기가 극심해 싸움으로까지 확대됐다. 결국 자모회장

과 격한 싸움을 벌인 나는 가슴에 심한 상처를 움켜쥐고 살아야 했다. 상처로 갈기갈기 찢어진 마음은 자연히 생활 곳곳에 영향을 미쳐 모든 일이 짜증스러웠고, 신경질적이 되었다.

여단기에 하소연이라도 싶었지만 웅얼거릴 것 같은데 어디 마땅한 대상이 없었다. 마침 큰 아이 탐입 선생님이 나와 연애가 비슷해 마음이 끌렸다. 그분에게 도움을 요

청했다. 학기가 시작되고 열달만 되었을뿐 어렵고 조심스럽게만 생각하던 아이 탐입선생님에게 하소연을 해보아겠다고 어떻게 마음 먹었던지 지금 생각해도 속스러운 일이다. 인연이라.

최근한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는 선생님과 근교의 조용한 전원 레스토랑을 찾았다. 선생님은 내가 마구 쏟아붓는 넋두리를 아무 말없이 다 들어주었다. 내가 웬만큼 진

정하자 조용히 다이어리 하나를 집어 읽어보라며 꺼내 주었다. 한마음선원 청년회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는 "집착은 욕심을 부리고 본래의 나를 잃어버리게 한다"고 조언해 주었다. 그 말을 가슴에 소중히 담아 집에 돌아온 나는 간만에 고요한 밤을 보낼 수 있었다.

이정민(충남 천안시 신부동)

### "공부하는 부모의 모습보다 더 좋은 스승은 없습니다."

#### 전통 經床의 실용화

사람의 강원에서 쓰는 경상을 오늘에 맞게 실용화 했습니다. 경전 공부하는 모습도 옛 전통을 이어받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사람의 강원이나 요사 뿐 아니라 불자들의 일상 생활공간을 귀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경전을 공부하는 부모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그 자체로 자녀교육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산사의 고즈넉함을 느끼며 부처님 말씀을 만나십시오.



**경전 공부상의 쓰임새**  
· 사찰의 강원 · 스님 호사재  
· 불자들의 강원기 · 자녀들의 학습

- 크기 : 가로 720 x 세로 340 x 높이 320 (단위:mm)
- 재질 : 느릅나무
- 가격 : ₩85,000

쇼핑몰 주문방법 \*전화: 02-732-1522 / 737-8881 \*팩스: 02-737-0697 \*인터넷: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 물 부다피아 선정 상품 특선



#### 참선명상방석

국내 최초 인체공학 설계 참선·명상·단전호흡 수련방석  
수련시 바른 자세는 수련에 많은 효과를 준다. 엉덩이 부분을 놓쳐 하는 것은 인체의 균형과 장시간 앉기도 허리와 허리에 역학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방석이나 좌褥 보다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련용 방석

● 크기 39×43(cm)  
● 가격: ₩27,000

#### 건강한방옥베개

인생의 1/3은 수면시간.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잠자리에 안락함을 느끼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피곤한 분  
·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날씨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  
· 좋은 수면을 하더라도 최고의 편안함을 느끼고 싶은 수험생 학생들  
· 불면증 등의 질환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 코골이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고민하신 분

● 가격: ₩30,000(1개) / ₩56,000(1세트)

#### 사이버 성덕대왕 신종

원형 그대로의 자태와 사이버 사운드와 완벽한 조화  
예열레드 소리를 전자 사운드 칩을 이용해 디지털화. 이 칩을 예열레드 속소모형에 넣어 제작 중을 지나 버퍼를 누르면 언제든지 온전한 종소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예열레드(동형)  
재질: 합금  
종류: 청동, 동종, 청동  
규격: 최대높이 30cm  
최대크기 15cm x 15cm  
중 5cm x 11cm  
가격: 143,000

■ 사이버 예열레드(주석)  
재질: 주석  
종류: 개금, 골종  
규격: 중 17cm x 12cm  
가격: 200,000

■ 사이버 예열레드(종나무사자)  
재질: 합금  
종류: 청동, 동종, 청동  
규격: 최대높이 26cm  
중 5cm x 11cm  
가격: 143,000

#### 장모부 만든 스켓자 그릇 밥우

밥우는 스님들이 항상 지니며 잘 도구의 하나인 밥그릇을 말한다. 편이든 밥다리 (鉢多羅-pa)인데 재료나 색, 양은 규정된 법에 따라야 하므로 양에 맞는 그릇(佛鉢)이라 해석한다. (물길에서 본래 규정은 나무로 만든 밥우를 사용하지만 못하게 하였고 청동(銅鉢)이나 옥(玉鉢)을 사용하게 하였다. 본 제품은 해안사 불현의 절제된 조형을 거쳐 제작된 밥다리(鉢多羅)이다.

● 외장우(4합) - 가격 60,000원 무지 2.7kg  
● 외장우(2합) - 가격 30,000원 무지 1kg  
(1개만 구매 시 배송비 무료 포함)

#### 눈인마기

1. 눈을 뜨게 해줍니다.  
2. 뇌 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3. 이용효과가 있습니다.

가격 : 49,000원

▶ 이런 분들께 권해 드립니다.  
컴퓨터에 장시간 앉아 사무를 보시는 분, 고수 수술성 눈이 자주피로해 지는 노인분들, 시력이 나빠진 분들, 귀소 매리피로를 많이 느끼시는 분.

#### 바위속에 숨은 부처 VIDEO 테일

불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후 관음의 대상인 부처님을 많이 조성하였고, 아름답고 신성스러운 산, 특히, 강주 남산은 불보살이 머물러 있는 신성한 영산으로 믿어 수 없이 많은 마애불과 석불 석탑이 조성되었다. 국보급 유물과 지방유형문화재 등 뛰어난 유물이 불경도 화승 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려던 선인의 존이 서린 성역임을 실감케 한다.

(제작) 대창프로덕션  
문화관광부 등록 제1호/구입-등록-통기대  
상영시간: 바위속에 숨은 부처 - 40분  
만아운산 - 30분

● 가격: ₩13,000

#### 달마도 순금판 액자

달마도의 대가 백현 홍종우 선생의 그림을 순금판(99.9%) 위에 그려서 액자 안에 넣어 선물용으로 최상의 작품입니다. 유서로가는 다음 나라(공의 차가 있습니다.)

액자 크기: 27cm x 32cm  
순금판 크기: 10cm x 15cm  
실용신인등록 No 2426 호

● 가격: ₩120,000